가을패션 와인색에 취하다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제3072호 www.metroseoul.co.kr

배상문 PGA 개막전 우승

산더미 국감자료 언제 검토하나? 올해도 달라지지 않는 국정감사장 풍경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많은 자료가 쌓여 있다. /뉴시스

금융권 수장 인선 열기 '후끈'

하영구 씨티행장 KB금융회장 출사표 초미관심
은행연합회·생보협·우리은행 등도 물밑경쟁 치열

연말을 앞두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되면서 '인사태풍'이 몰아지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이어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KDB대우증권 투입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차기 KB금융 회장에 도전하기 위해 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인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우리은행장 임기만료도 다가오면서 물밑 경쟁 또한 뜨거워지고 일부에선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차기 KB 회장 이달 중 윤곽

이달중 후보가 확정되는 KB금융 회장 인선은 KB사태이후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KB금융 회장직을 놓고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등 7명이 경합중이다.

이번 KB금융 차기 회장 인선에는 하 행장이 큰 변수로 부각됐다. 하 행장은 차기 KB금융 회장에 도전하기 위해 임기 1년 5개월을 남기고 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하 행장이 현직 행장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외에도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과 양승우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회장 등도 만만치 않은 도전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불가능한 경합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 우리은행·금융협회장도 인선 착수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영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이 회장이 내달 1일 지주와 은행의 통합 이후 우리은행장으로서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전직 우리은행 고위 임원들이 차기 행장직을 노리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무난하게 은행을 이끌어온 만큼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이 11월 12월 중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선임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차기 은행연합회장엔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거론되고 차기 생보협회장엔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과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이 경쟁 중이다.

서울보증보험 사장에는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임 주택금융공사 사장에는 현재 사장직무대행을 맡은 한국은행 출신의 김재천 부사장과 이승희 전 IBK캐피탈 대표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이밖에 KDB대우증권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산업은행 출신인 이심규 수석부사장과 이영창 전 대우증권 부사장, 홍성국·김국용·황준호 김성호 부사장 등 6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관피아 배제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상대 후보 흠집내기용 괴소문도 난무하는등 구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도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마다 찾아오는 경제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어 금융권 CEO는 낙후된 한국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위기대처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인사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민지·송현재·김형석기자
min1@metroseoul.co.kr

세빛둥둥섬 → '세빛섬' 새단장

효성 운영, 종합문화공간 내일 전면 개장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떠 있는 인공섬이자 세계 최초 수상 컨벤션 시설로 주목받는 세빛둥둥섬이 '세빛섬'이라는 새 이름으로 15일 전면 개장한다.

'세 개의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세빛섬'은 총 연면적 9995㎡(3030여평)에 ▲컨벤션센터·카페 등이 있는 '가빛섬' ▲레스토랑이 있는 '채빛섬' ▲수상 레저시설이 들어선 '솔빛섬' 3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돼 있다. 또 미디어아트갤러리 '예빛섬'이 함께 있다.

가장 큰 '가빛섬'은 5478㎡(3층) 규모다. 컨퍼런스·패션쇼·런칭쇼·결혼식 등이 열리는 700석 규모의 수상 컨벤션센터·레스토랑·카페 등 다가능 종합 문화시설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채빛섬'은 3419㎡(3층) 규모로 17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젊음'과 '축제'를 테마로 음식·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했다. 한강을 보며 공연과 식사가 가능한 개방형 다목적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 LED바닥조명과 수상정원으로 꾸며진 외부 공간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솔빛섬'은 1098㎡(2층) 규모로 향후 전시공간과 수상레포츠 지원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연계 시설인 미디어아트갤러리 '예빛섬'은 346㎡ 규모로 대학생 등 아마추어 작가의 발표 공간과 각종 전시장, 발표회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15일 오후 예빛섬에서 '한강의 새로운 문화, 세빛섬이 열어갑니다'를 슬로건으로 개장식을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개장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운영사인 효성의 이상운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ksgit@

에볼라 출혈열 주의하세요! 미국에서 두 번째 에볼라 환자가 최종 판정을 받으면서 에볼라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 모니터에 에볼라 감염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제재>

"5·24, 남북 대화로 풀어야"

박 대통령, 통일준비위서 "도발엔 단호하되 대화의 문은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안정한 남북 관계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급 접촉을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며 "하지만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세부 방안 마련 ▲평화 통일 헌장 제정 준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추진 ▲통일 한반도 달성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을 제시했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만을 위한 원격의료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지난달 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 저지 투쟁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달 진행한 시범사업은 정부 자신만의 것이라 의료계의 노력은 무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시범사업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의협이 불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9개 시군구에서 11개 의료기관의 참여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5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하는 기관은 고작 6개, 환자도 1200명뿐이다. 이마저 절반은 대조군이라 원격모니터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큰 시범사업이라 더 많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시범사업이 정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만성질환자들로 이들은 보통 1~3개월에 한 번 의사를 만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면진료는 아니라도 매주 한번씩 의사와 마주하게 된다. 자신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명분으로 환자에게서는 긍정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와 영상검사비, 진료비 등도 지원돼 참여자 입장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보기 좋게 포장되며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시범사업을 밀어붙여야 했던 진정한 이유다. 정말 복지부만을 위한 기막힌 밥상이 완성된 꼴이다.

"서북도서 점령 대비 '신궁' 등 추가배치"

합참 "민간단체 풍선 날리기 때 즉각 대응태세 구축"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점령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휴대용 대공무기 '신궁'과 상륙장갑차를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강점에 대비해 최근 북한군 전력 증강 및 공격 양상을 재판단해 우리 군의 대응계획의 시간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휴대용 대공무기인 '신궁'은 최대 사거리 7km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 헬기를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합참은 접적 지역의 전투 도발 대비책과 관련, "민간 단체가 (대북) 풍선을 날릴 때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적 전선 화력 증강을 고려해 우리 군 전방사단의 105mm 견인포를 155mm 자주포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이어도 남단까지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군 작전 구역(AO)도 올해 1월 동일하게 일치시켰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와 함께 GP(비무장지대 내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 작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GOP 병력의 교대 주기를 8~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권례로 시행 중인 주·야간 근무 전환 시간대의 전원 투입 등 근무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與 혁신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추진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혁신안을 보고했다. 혁신안에는 세비 동결안과 함께 앞서 공개했던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3대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율곡이이함 2년간 어뢰 방어 불능 상태로 작전"

● 해군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이 약 2년간 어뢰 방어 불능 상태로 작전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율곡이이함 병단장 정밀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율곡이이함에 탑재된 총 24발의 어뢰 기만단 중 18발이 바닷물에 의한 부식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지난 3월 검사 결과 드러났다.

내년 겨울부터 취약가구 난방비 10만원 지원

● 내년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 가구가 평균 10만원 가량의 난방 연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학연금 수급자 절반 300만원 이상 수령"

사학연금 수급자는 2명 중 1명꼴로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금수급자수 및 연금 수급자 추계'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총 4만7333명 중 2만1279명(46%)이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 금액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300만~350만원대로 3만3519명 중 1만1859명(35.4%)이 밀집해 있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는 200만~250만원대 사이에 가장 많은 수급자가 밀집해 1만4214명 중 3721명(26.2%)이 모여 있었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들 중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82%에 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될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으며 이 시점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 수는 14만4344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연금공단 측은 "사립학교연금은 국공립학교에 준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친북 게시물 삭제 1400건

조원진 의원 "北 실세 3인방 방한 하루전에도 대남비방 영상"

최근 5년간 인터넷상에서 친북 게시물 삭제나 친북 사이트 폐쇄된 건수가 69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400건꼴이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6940건의 친북 게시물 삭제나 사이트·SNS 폐쇄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친북 SNS 차단은 2010년 33건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891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해외 친북 사이트로는 ▲민족대단결 ▲노동신문 등이 불법카페로는 2010년 폐쇄된 내어버이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이 있었다.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 실세 3인방이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조 의원은 "온라인의 신속한 전파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친북 불법 게시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민감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동향에 대한 더욱 냉철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다혜기자 sdh@metroseoul.co.kr

국화 향기에 취해 보세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개막한 2014 무역센터 국화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화려하게 전시된 다양한 국화꽃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5촌 조카 사기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술집 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과시하고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정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다혜기자

안전공단, 13개 외국어 산재예방자료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의사소통 등 문제로 발생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급되는 자료는 안전보건 교재, 포스터, 경고표지 스티커 등 모두 42종이다.

교재와 매뉴얼 자료에는 일선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직종별 안전보건 수칙 등이 담겼다.

자료는 각각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13개 외국어와 한국어로 표기됐다.

배포는 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해당 국가 대사관 등에도 제공된다.

13개 외국어로 제작된 외국인근로자용 교재 2종 /안전보건공단 제공

서울여대, 수시모집 수험생들에 간식

서울여대가 11일 2015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우수자전형 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간식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여대는 이른 아침부터 실기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응원의 말을 적은 빵과 음료수를 준비했다.

실기고사를 마무리하고 나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서울여대의 따뜻한 정성에 감동하고, 간식을 나눠주는 재학생들의 응원에 힘을 얻고 돌아갔다.

서울여대는 추후 진행될 수시모집 전형일정에도 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여대가 11일 오후 2015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우수자전형 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서울여대 제공

급성 맹장염 병사 수술받기 전 사망

군 의료기관, 식사 한 상태라는 이유로 시술 미뤄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2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서모(20) 상병이 급성 맹장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받기 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급성 맹장염으로 국군강릉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 상병이 포츠담관으로 이날 새벽 사망했다"며 "국군강릉병원은 서 상병이 갑자기 사망한 원인을 급성 맹장염으로 인한 급성패혈증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12일 복귀한 서 상병이 오후 7시45분께 복통을 호소하자 해당 부대의 의무대대는 오후 8시57분께 서 상병을 국군강릉병원에 입원시켰다.

국군강릉병원은 서 상병이 이미 식사를 한 상태라는 이유로 입원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30분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3일 새벽 2시45분께 서 상병이 의식을 잃고 호흡까지 곤란해지자 새벽 4시5분께 강릉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4시45분께 숨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다혜기자

서울 재난위험시설 영등포 등 5개구에 몰려

서울시 재난위험시설의 과반이 영등포 등 5개 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226곳이다.

서울시의 재난위험시설물의 종류는 ▲아파트 57곳 ▲연립주택 44곳 ▲건축물 37곳 ▲수박 32곳 ▲시설물 29곳 ▲판매시설(시장·상가) 19곳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가운데는 영등포구가 27곳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와 관악구가 각각 26곳, 용산구와 성북구가 각각 20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는 재난위험시설물이 하나도 없었고, 강남구는 단 1곳이었다.

/손다혜기자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선물해요"

KT, 흰 지팡이의 날 행사

KT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년 10월 15일로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KT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KT 희망나눔' 행사에는 IT서포터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시각장애인 200여명을 초청했다. 특히 소리책 재능나눔 봉사자들과 KT여성창업공모전 대상을 받은 시각장애인 천명지 씨, 시각장애인 IT접근성 개선활동을 해온 KT 주니어 IT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각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각장애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IT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시각장애인 시인의 시 낭송과 시각장애인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선주 KT CSV센터장 상무는 "KT는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IT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IT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

"노래로 용기 주는 난 행복한 사람"

사람이야기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전신마비의 장애를 딛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하는 성악가가 있다.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33)이다.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광장에서 처음 만난 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지만 건장한 체구를 가진 밝은 사내였다. 쌍꺼풀 진 큰 눈은 맑아보였다.

◆ 전신마비 사고 절망의 삶

서울에서 태어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아버지 이용전(61)씨를 따라 전남 목포로 내려갔다. 노래를 곧잘 부르고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 중학교때 누군지도 모르는 성악가의 노래를 듣고 몸에 전율을 느낀 뒤 전남예고에 들어가 성악을 처음 배웠고, 대학에서도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나 제대 후 2004년 여름 그의 날개는 꺾였다. 친구들과 수영장에 놀러갔다가 다이빙을 하는 순간 번쩍 번개가 치는 듯 눈앞에 빛이 비췄다. 다이빙할 때 몸이 돌려 수영장 벽면에 뒷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30분 동안 물 속에 잠겨 있었지만 친구들은 그가 잠수를 하는 줄 알았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 폐에 찬 물을 빼내고, 6시간에 걸쳐 수술을 했다. 부러진 목뼈 조각 수십개를 제거하고 골반뼈를 목에 이식하는 대수술이었다.

수술 후 그는 눈으로 천장을 보는 것 외에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의사는 "척추 손상으로 어깨 밑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노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시의 충격은 상상할 수도 없죠. '차라리 저의 목숨을 거둬가시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라며 하느님을 원망했어요."

◆ 노래하며 '희망'을 찾다

삶이 고통이고 절망이었던 그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다가왔다. 어느날 통원 치료를 받으러 병실로 이동하던 중 어린이병동에서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창밖에서 물끄러미 바라 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보냈다. 아이들은 웃음과 함께 동요를 부르며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어날 때 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모두 티없이 해맑았어요. 천사 같았죠. 나보다 더 나을게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이후 그는 교수, 의사들을 찾아 다니며 "노래를 하고 싶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하소연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불가능하다"였다. 담당의사는 "당신의 폐활량은 일반인의 20~30% 수준이다. 특히 척추신경 손상으로 복식호흡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 조차 버거울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 목표는 노래 한곡의 1절만 부르는 것이었다. 1년 동안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만 외우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결국 2년이 지나 '청산에 살리라'의 1절을 부를 수 있게 됐다.

"사고 후에 숨을 모아 한숨을 쉴 수 없었고, 숨을 모아 기침도 할 수 없었죠. 노래 한곡을 부르던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 수많은 무대 행복 전도사

요즘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그를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금난새가 지휘하는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지난 1월에는 KBS1 '강연 100℃'에 출연해 '숨'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에세이집 '나는 지금이 좋다'(터치북스)는 책도 냈다.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KBS 교향악단과 Soul Player가 함께하는 제 10회 오케스트라의 선물'에서 바리톤 김동주와 한무대에 선다.

"노숙자 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연을 마치자 한 노숙자께서 올라와 제 손에 빵을 쥐어 주시며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에요. 저도 가슴 뭉클했죠."

그는 장애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을 계속 살 것이다. 이를 위해 성악 본고장에 가 좀더 공부하기를 원하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만들고 싶어 한다. 뜻을 같이하는 독지가와 기업의 후원이 필요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고 당시 정성을 모아 27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올해 초에는 남현씨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가끔 정상일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요. 그때마다 전 '지금이 좋다'고 하지요. 사고를 통해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현대삼호重 수술비·뮤비 제작 등 후원
장애인 돕기 '많은 기업 뜻 함께했으면'

어머니 김춘사(58·왼쪽)씨는 이남현씨가 가는 곳은 어디든 함께 하며 그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전 세계 23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를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Russia

Вместо Египта будем отдыхат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

metro Brazil

briga bancos eira de rodas

산투스시 은행 휠체어 설치 의무화

브라질 산투스 지역 내 모든 은행 지점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투스시는 도시 내 은행 지점들의 휠체어 설치 의무화 법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90일의 유예 기간 이후부터는 설치 의무를 어길 시 500헤알(약 22만 원) 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 연속 어길 경우 2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metro France

Une éolienne dans votre pièges à éviter

가정용 풍력 발전기 인기

프랑스에서 가정용 풍력 발전기 설치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장 마르크 노엘 풍력발전협회 전 회장은 "4인 가정에서 가정용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기 사용료의 40~50%를 충당할 수 있다"며 설치 비용은 1만8000유로(약 2440만원)"라고 밝혔다.

metro Chile

ó a su hija por una espiritual" en Machalí

악령 내쫓으려다 7세 딸 살해 충격

칠레에서 '정신병'을 치유하려다 어머니가 딸을 질식시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비아 안드라데(37)는 평소 자신의 딸 다이아나 에스코바르(7)의 영혼이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최근 집에서 '악귀 정화 의식'을 했다.

안드라데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딸의 머리를 그 속에 담궜다 뺐다를 반복했다. 오랜 시간동안 반복된 '물 고문'에 다이아나는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안드라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 밤 늦게 다이아나의 아버지가 돌아와 죽어있는 딸을 발견했고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심상치 않은 부부 싸움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다이아나의 부모와 인근에 사는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은 어머니인 안드라데가 단독으로 벌였지만 다른 가족이 범행 전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을 우려한 경찰은 다이아나의 동생을 정부 보호소에 격리 수용했다.

움베르토 라고스 산티아고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칠레에서는 아직도 물과 불을 이용해 치유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고스 교수는 "이들은 전통 가톨릭에서 행하는 세례 의식을 변용해 '과거의 삶을 버린다'는 의미로 이런 일을 벌인다"며 "물 속에 머리를 오래 담그고 있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비에 라반추아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10년 후 가장 가고 싶은 곳 '북한'

관광 업계·미래학자 예측 결과… '금지된 구역'에 대한 호기심 반영

최근 관광산업 전문가와 미래학자가 2024년 러시아 관광산업 전망에 관한 예측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와 미래학자 이엔 요멘이 공동으로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 '미래의 여행 산업'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인이 10년 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가는 북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방문과 관광이 금지된 구역이 많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인의 호기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스캐너 관계자 필립 필리포프는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민은 미개척 여행지를 선호한다. 특히 이상한 경험이나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에 가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인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외에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비싸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와 중동 국가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비교적 안보 상태가 좋고 국립공원 등 볼거리가 많은 보스와나와 중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빠른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앙골라가 러시아인의 희망 여행지로 꼽혔다. 세계적인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부탄도 10년 후 러시아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요멘은 "미래 여행 추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며 "기존의 전형적이고 획일적인 호텔 방이 사라지고 우주 여행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에는 7만5000 달러(약 8000만원)에 고도 3만m 성층권까지 우주 여행이 가능하고 2024년에는 우주여행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멸종 동물을 볼 수 있거나 밀림·사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도 앞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스베틀라나 크라슈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27.21	534.31	2.2%	1068.00
(-18.71)	(-21.54)	(변동없음)	(-5.00)

뉴스&뉴스

NHN엔터 일본 웹툰 서비스

● NHN엔터테인먼트는 일본 법인 NHN플레이아트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일본의 인기 웹툰 코미코의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미코는 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 앱 기반 웹툰 서비스로 현재 600만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웹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97개 작품 3000화의 웹툰이 서비스 중이다.

한국어 버전에서는 일본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 20편과 한국의 기성 작가와 신인작가 작품 20편 등 총 40편, 172화의 웹툰이 제공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코미코 한국어 서비스 시작에 앞서 국내 기성 작가들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희기자

구직자 64% "스펙 초월 불리"

● 구직자 10명중 6명 이상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펙 초월 채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637명을 대상으로 '스펙초월 채용이 취업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64.2%가 '불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기본 스펙 외 준비할 게 더 늘어날 것 같아서'(49.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또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기업별로 다른 자격조건 갖추기'(60.8%,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국명기자

미래부 국감, '단통법' 논란 집중추궁

"가계통신비 감소 위한 정부 대책 필요" 지적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미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단통법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마련됐지만 법 시행 초기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이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간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유 제품을 내정가격 20만9200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7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문건에 명시된 가격은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단통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까봐 분리공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밀을 지키려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단통법 시행 초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미방위원장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의 혼란과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판매점이 늘고 있다"며 "최 장관이 방문한 서초동 전자상가에 방문 이후 폐업한 곳이 5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높은 가계통신비로 인해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롯데월드몰 14일 오픈 쇼핑, 외식, 관람,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 등 여가생활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쇼핑몰 롯데월드몰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연면적 42만8934㎡(12만여평)의 롯데월드몰에는 ... 에비뉴엘과 401개 브랜드가 입점하는 롯데면세점, 쇼핑몰 ... 아쿠아리움, 롯데마트 외 하이마트까지 약 1000여개의 브랜드가 들어선다. /연합뉴스

다음카카오 "향후 감청영장 거부"

이석우(사진) 다음카카오 대표는 "대표이사로써 법적 책임을 지고서라도 감청영장에 앞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감청영장이란 중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대법원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93.7%의 영장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구성 ▲투명성 리포트 정기 발간 ▲서버 보관기관 2~3일로 단축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게임축제 '지스타2014'… 역대 최대

작년보다 160부스 늘 듯

국내 최대 게임축제 '지스타'가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스타 역시 10년 이래 참가 실적이 가장 저조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가 됐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 이하 K-IDEA)와 지스타사무국은 13일 '지스타 2014' 중간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신청 마감된 지스타 2014의 참가업체 규모는 2013년의 2261부스보다 13%(297부스) 성장한 2558부스로 역대 최대 부스로 진행된다.

지스타2014 BTC관은 전년과 동일한 2만6000여 ㎡(벡스코 제1시전시관 전관)의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국내외 게임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행사규모는 2013년의 1235부스보다 160부스 늘어난 1395부스로 역대 최대다.

BTC관에는 2년만에 대작으로 참가하는 엔씨소프트와 지스타에 10년 연속 참가하는 넥슨, 그리고 엔트리브, 네오플, 넥슨 GT, 모나와 스마일게이트, 엑스엘게임즈 등이 얼굴을 내민다.

해외기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100부스로 참가하는 소니, 그리고 유니티코리아, 오큘러스VR 등이 눈에 띈다.

지스타는 다음달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나흘간 개최된다. /김성현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3
독자센터 02)721-9801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파문 확산

당국 조사착수 이어 금소연, 삼성·교보·한화 등 10개 생보사 불매운동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교보·한화·동부·알리안츠 등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들 업체에 대해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소연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생보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10개 업체다.

금소연에 따르면 해당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소연은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에 대해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며 "업계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불매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들 생보사에 대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작이다.

당시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9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타 생보사에 대한 현내 검사도 마무리하고 내년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최근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관련 생보사들이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비책마련을 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부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형석기자 khs@metroseoul.co.kr

채권전문가 기준금리 인하 예상

일부 금통위원 인하에 긍정 입장

채권 전문가 2명 중 1명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13명) 중 50.4%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8월 금통위에서 한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대내외 경제불안 요건에 지속과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추가 인하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적 경제 상황들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인하 압박도 '10월 금리 인하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소폭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인하 폭을 명시하지 않고, '소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 위원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로 7월 전망에 비해 성장경로가 다소 하방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채권시장 투자심리는 지난달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의 전반적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전달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108.1로 집계됐다.

금리전망 BMSI는 전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126.6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심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지기자 minj@

NH농협, '행복채움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13일 농·축협과 손잡고 '행복채움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이벤트 시즌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을 신규가입하고 로그인하거나 장기미거래 해제 고객 대상으로 한다.

고객은 NH스마트뱅킹내 고객센터-이벤트 또는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이벤트 응모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농협은행은 추첨을 통해 NH기프트카드(90만원 상당) 4명, 캠핑시기어(30만원 상당) 4명, 미스젯사인(15만원 상당) 12명, 스마트밴드(12만원 상당) 20명, OTP보안카드 2000명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한편 NH스마트뱅킹은 인터넷뱅킹 가입 없이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와 스마트전용 예·적금 상품, 각종 부가기능을 탑재한 앱 등을 제공한다.

소성모 NH농협 스마트금융부장은 "스마트뱅킹 고객 확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IT와 금융을 융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스마트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an0803@

기술금융 급증…기업銀 실적 1위

9월 전체 기술금융이 한달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가운데에는 기업은행이 은행 전체 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3187건에 1조5334억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기술신용 대출은 7월 486건에서 8월 1024건, 9월에는 1677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연말까지 전망치(7500건)의 42.5% 수준에 해당한다.

전체 은행 가운데에는 기업은행이 대출 건수(1337건)와 잔액(6920억원) 은행 전체 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우리은행이 425건(2855억원), 하나은행이 333건(282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채신화기자

동부·유진증권에 과태료 물려

동부증권이 계열사의 과도한 회사채 물량 인수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증권사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0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증권사는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 300억원 전량을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태가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총자산 42조 증권사 탄생 임박

우리투자·NH농협증권 합병 17일 인가…사명 변경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하면서 증권업계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게 됐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 인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두 증권사의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 30일이며 합병 증권사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등기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합병 증권사의 사명도 바뀔 전망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통합추진단 논의를 거쳐 조만간 그룹 브랜드위원회를 열고 합병 증권사의 사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명은 '우리'나 '우투'를 제외한 명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하면서 '우리'라는 명칭을 3년 후부터 쓰지 못하게 한 데다 새로운 조직과의 보다 유연한 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두 증권사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증권사는 4차례의 기업 인수·합병(M&A)과 6번의 사명 변경을 통해 창사 40여년 만에 업계 1위 증권사로 도약하게 된다.

합병 증권사의 총 자산은 42조원, 자기자본은 4조3000억원이다.

우리투자증권은 1969년 자본금 1억2000만원으로 설립된 한보증권으로 출발해 1975년 대보증권으로 상호 변경한 뒤 1983년 럭키증권과 첫 번째 합병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옛 LG그룹의 산업계 재벌 증권사로 급부상하며 1995년 LG증권을 거쳐 1999년 LG증금과 두 번째 합병 뒤 LG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꿨다.

그러나 옛 LG그룹이 과거 카드사 부실 사태를 겪으며 채권단에 넘어가 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2004년 우리금융그룹 산하로 들어가 당시 중소형 증권사였던 우리증권과 세 번째 합병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M&A를 통해 업계 1위로 성장한 기업은 드물다"며 "이번 합병과 사명 변경 후에도 든든한 자본력과 그동안의 수 차례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kim1@metroseoul.co.kr

현대라이프 대표에 이주혁 현대카드 부사장

현대라이프생명은 신임 대표이사에 이주혁(56·사진) 현대카드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경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1983년 현대종합상사로 입사한 뒤에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현대카드 금융사업본부 부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최진환 전 현대라이프 사장은 지난 1일 보안업체인 ADT캡스 사장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다음카카오 신주 오늘 상장

코스닥 시총 1위로

다음과 카카오 합병에 따른 신주가 14일 추가 상장하면서 코스닥시장 대장주로 기존 셀트리온을 제치고 다음카카오가 올라서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합병에 따른 발행 신주 4300만434주를 14일 추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주를 포함한 전체 상장주식은 5656만3063주다.

다음카카오의 시총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7조8735억원에 달해 기존 시총 1위인 셀트리온(4조3793억원)을 크게 웃돌게 된다.

이로써 2008년 SK브로드밴드 이후 5년9개월 만에 코스닥시장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이 대장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은 SK브로드밴드에 이어 2009년 1월 태웅, 같은 해 2월 셀트리온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다음카카오로 변경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일 공식 합병 후 14일 신주 발행과 함께 거래소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음카카오 상장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의 상장이 계속 이어져 코스닥시장이 첨단 기술주 중심시장의 정체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나눔활동으로 '유진의 숲' 조성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77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진의 숲' 조성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의 자연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홈플러스·이마트, 보험사에 고객 정보 팔아넘겼다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0년 10월 이후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575만여건을 모은 뒤, 이를 건당 1980원~2200원에 보험회사 측에 판매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홈플러스가 벌어들은 돈은 약 100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이마트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4차례의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에 총 66억6800만원이 신한생명에 판매됐다.

신한생명은 이마트에게 받은 고객정보를 대가로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이용료를 지급했다. 경품행사 대행사도 월별 18만~2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어 다른 보험사에도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고객들은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석기자

IBK경제硏 "중소제조업 4분기 경기 개선"

중소제조기업들이 4분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전국 중소제조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전분기보다 7p 상승한 106으로 전개돼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수주(105)와 내수판매(105)가 호전될 전망이나 자금사정(96), 채산성(97), 수출단가(95) 등은 여전히 부진해 전반적인 경영상황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한편 3분기 주요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 '판매대금 회수난', '과당경쟁' 등이 꼽혔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와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전반적인 경기 BSI 추이>

	2012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반적 경기 (전망)	91	[illegible]	93	[illegible]	87	[illegible]	96	105	9[illegible]	[illegible]	99	106
전반적 경기 (실적)	92	93	79	86	79	87	86	94	91	93	91	

주: 경기기준치 초과여부 조성 (100 기준) [illegible]

LG 등 국내 기업들 '짝퉁과의 전쟁' 선포

브랜드 가치 훼손 생각보다 심각해
사법당국과 적극 협조 모조품 근절

LG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가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막기위해 중국의 짝퉁제품과 전쟁에 돌입했다.

삼성전자가 중국서 짝퉁 스마트폰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최근 모조품(짝퉁)이 급격히 증가한 자사 헤드셋 'LG 톤플러스' 짝퉁 시장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13일 LG전자는 미국 중국 등에서 LG 톤플러스 모조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매자는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톤플러스는 LG전자를 대표하는 헤드셋 제품으로 2010년 첫 출시 후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 다양한 편의기능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급속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사내 특허센터 주도로 중국 공안당국과 손잡고 짝퉁 단속에 돌입했다. 공안당국은 최근 중국 심천시 소재 주요 전자시장에 '톤플러스'를 유통

해온 중국 업체를 단속해 모조품 전량을 압수하고 업체 대표를 체포한 바 있다.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또 미국 내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 거래선에 모조품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 짝퉁 제품을 유통한 거래선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문도 발송했다. 이후 1개 업체를 적발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서영재 LG전자 MC사업본부 IPD사업담당(상무)은 "브랜드 및 기술,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은 LG전자의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법당국과 공조해 반드시 근절시키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역시 짝퉁 스마트폰 피해를 막기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정품 등록을 하도록 유도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삼성전자 정품인지, 짝퉁 제품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박스 포장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삼성전자 AS 센터로 찾아와 AS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셰일가스 사업 조선업계 '단비'

삼성重 LNG 3척 6600억 수주 … 매년 확대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선 3척을 6640억원에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이중연료(Dual Fuel) 엔진을 탑재한 최신 에코 사양의 17만 6000㎥급으로, 기존 LNG선보다 운항 효율이 높고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도 가능한 친환경 LNG선이다. 2018년에 인도돼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물량을 아시아로 운송하는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프로젝트는 사빈패스, 카메론, 프리포트, 코브 포인트 등이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수출 승인을 얻은 상태다. LNG 운송에 필요한 선박은 90여 척으로, 이 중 60여 척은 아직 발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LNG선 발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수출 승인을 받은 4개의 프로젝트 외에도 14개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FERC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호주·모잠비크·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의 LNG 개발도 진행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동아프리카 등지의 LNG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간 30척 이상의 LNG선이 꾸준히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채신혼기자

우버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의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 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버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과 렌터카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정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우버는 차량 사고 시 보상 미흡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에도 "승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서비스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주소록 문자 원할때 자동 저장 KT는 스마트폰 이용 고객들의 안전한 정보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를 무료로 저장·복원하는 '심플 백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플 백업'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과 문자를 5, 10, 15일 중 원하는 주기에 따라 자동 저장되도록 지원한다. /KT 제공

LG·삼성디스플레이 IMID2014서 '첨단' 공개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서 제품 맞대결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14~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4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 전시회(IMID 2014)에 참가해 첨단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77·65·55인치 울트라HD(UHD·초고해상도) 곡면(커브드) OLED TV부터 웨어러블 기기용으로 만들어진 1.3인치 원형 플라스틱 OLED 제품을 앞세워 백라이트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선보인다. 또 105·79·65·55인치 TV용 곡면 LCD와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21:9 화면 비의 34인치 곡면 LCD를 전시한다.

이외에도 베젤(테두리) 두께를 최소화한 모니터, 노트북용 디스플레이, 98인치 크기의 전자칠판, 투명도를 10%로 개선한 풀HD급 55인치 투명 디스플레이, 3.5㎜ 베젤의 대형 3D 비디오 월 등으로 전시관을 채웠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곡률 4000R(반지름 4000㎜인 원이 휘어진 정도)를 구현한 커브드 UHD TV(55·65·78인치)와 모니터(27·34인치)를 내세운다.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곡률이 낮을수록 몰입감이 높아진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기어핏과 기어S에 쓰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커브드 슈퍼아몰레드를 비롯해 옆면까지 터치할 수 있는 갤럭시노트 엣지용 '커브드 엣지' 디스플레이도 함께 전시한다.

IMID 2014는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100여개 회사가 참가한다. 학계·관련 업계 등에서 6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최동원 LG디스플레이 프로모션담당(전무)는 14일 IMID 디스플레이 비즈니스포럼 2014에서 "울트라HD 도래에 따른 새로운 고객가치"라는 주제로 울트라HD TV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가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롤드컵 결승전 4만석 다 팔렸다

16일 상암서 e스포츠 신화 창조 예고 삼성 화이트-중국 로얄 클럽 맞대결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이 e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결승전 유료 티켓 4만장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라이엇게임즈는 롤드컵 2014 결승전 추가 좌석 1만석이 판매 2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판매된 3만석에 추가 1만석을 더하면 이번 롤드컵 결승전 유료 관중은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셈이다.

롤드컵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이미 8강 때부터 드러났다. 부산 벡스코에서 3~6일 진행된 8강에는 매일 2000명 이상의 관중이 방문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4강에는 첫 날은 5000명, 이튿날은 7000명의 팬들이 찾아왔다.

이는 역대 e스포츠 최대 관중이었던 SKT 프로리그 2006 전기리그 결승전의 12만 명을 뛰어넘는 성과다. 당시 관중은 모두 무료였기 때문에 이번 유료 관중과 비교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라이엇 게임즈는 "롤드컵 결승전의 4만 관객 기록은 그 숫자 자체 뿐 아니라 유료 콘텐츠로서 월등히 성장한 e스포츠의 가치를 증명한다"며 "새로운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가고 모두가 즐거운 문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결승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시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한국과 중국 최강 팀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11~12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4강 대회를 거쳐 한국의 삼성 화이트와 중국의 로얄 클럽이 결승에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SKT T1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중국 로얄 클럽은 지난해에도 SKT T1팀과 결승에서 맞붙은 전례가 있어 경기의 긴장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엇게임즈는 결승전 당일 경기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의 오프닝 공연도 열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아이폰6·6플러스 전파인증 통과

출시일은 미정

애플이 4.7인치 스마트폰인 아이폰6와 5.5인치 제품인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 전파인증을 완료했다.

13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6(모델명 A1586)와 아이폰6플러스(A1524)가 국내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이 두 모델들은 스프린트 등 미국 일부 이동통신사와 호주·일본·홍콩 등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파인증 이후 출시까지는 통상 1주일여가 걸리지만 아이폰의 경우 세계적인 물량 부족 등으로 실제 출시가 언제일지 가늠하기는 다소 어렵다. 애플 측 역시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애플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동시 출시된다.

한편 이 두 제품은 미국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GSM아레나는 현지 통신요금 선불서비스 회사인 부스트모바일이 17일부터 애플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가격을 100달러 인하해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아이폰6 16GB·64GB·128GB의 미국 출고가는 649.99달러, 749.99달러, 849.99달러 등인데 이를 각각 549.99달러, 649.99달러, 749.99달러 등 100달러 할인된 가격에 판다.

아이폰6플러스도 16GB 649.99달러, 64GB 749.99달러, 128GB 849.99달러 등 100달러 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양혜은기자

볼보자동차 S60 R-Design 국내 공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13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S60 R-Design을 선보이고 있다. S60 R-Design은 최대출력 245마력의 최대토크 35.7kg·m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안전 최고속도 240km/h와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6.8초만에 도달하는 등의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판도라TV 모바일 메신저 시작

토종 동영상 기업 판도라TV가 모바일 메시지 시장에 진출한다.

판도라TV는 100% 주식교환방식으로 최근 노바토를 인수 합병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출신들이 창업한 노바토는 아산나눔재단이 주최한 2013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노바토가 지난 7월 오픈한 서비스 '잼'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룹 메신저로 주 사용자층은 10대와 20대 여성이다.

'하트 날리기', '비밀 메시지' 등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메신저들과는 차별점이 있으며 가입한 그룹마다 각각의 다른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박성훈기자 zen@

화웨이, 스마트폰 'X3' 광고 개시

장위안 등 출연

중국 ICT 솔루션 기업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X3'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화웨이는 최근 한국시장에 공식 출시한 X3의 광고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영상 광고에는 최근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위안과 다니엘 린데만, 기욤 패트리가 출연해 X3의 셀카, 3배 빠른 LTE-A, 대용량 배터리 등을 재미있는 연기로 표현했다.

이 동영상 광고는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인천국제공항 광고 상영과 신도림역,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등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 광고로 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펼친다.

한편 X3를 판매하는 미디어로그는 오는 31일까지 미디어로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X3를 구매하는 선착순 333명의 고객에게 24개월간 매월 77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장혜윤기자 hjune@

고객과 더 가깝게… 친밀함으로 분양 승부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귀에 익은 노래 개사
체험행사에 가까운 이웃이 직접 홍보 나서기도

"하루 종일 '퐁당 퐁당' 가사를 바꾼 '봉담 봉담' 멜로디가 입에 맴돌아요. 처음 라디오에서 이 CM송을 들었을 때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라서 그런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방문객)

분양 성수기를 맞아 신규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고객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비자의 기억 속에 보다 오래 담을 수 있도록 익숙한 CM송을 준비하는가 하면, 소통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10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는 동요 퐁당퐁당을 개사한 '봉담봉담'을 라디오 광고에 내보내고 있다.

봉담읍이 화성시 내 최대 주거지역임에도 동탄신도시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 익숙한 멜로디에 '봉담'을 강조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덕분에 봉담지역은 물론,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을 준비 중인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는 딱딱한 홍보 도우미가 아닌 옆집에서 볼 수 있는 주부들을 통해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사업지 인근인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15명을 선발, 주부 홍보단인 '미자랑'을 구성했다. 직원들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두산중공업이 트리마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클럽모우CC 회원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골프행사를 개최했다.

단순히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부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건설은 또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역 파크 자이' 분양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도 수요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잇기 위해 홈페이지뿐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과 같은 다양한 SNS 채널을 구축했다. 상품 정보는 물론 지역 개발 소식과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하다.

고객들이 참여하는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공급한 '트리마제' 계약자와 그 배우자를 초청해 골프행사를 가졌다.

트리마제는 상품의 콘셉트인 '웰컴 라이프' 차원에서 계약자들에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클럽모우CC 주중 회원대우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날 회원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견본주택에서 모형도를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조망권과 생활권을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하는 곳들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센타힐즈)에 분양 중인 '센타힐즈 더샵'의 내방객들에게 지구 내 들어설 중산호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향후 대규모 공원이 계획된 중산호수 주변으로 데크와 산책로를 설치해 현장을 둘러보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선옥기자 ess1926@metroseoul.co.kr

4분기 전국 5만가구 집들이

부산·경기·세종 순

4분기 전국 입주 물량이 5만여 가구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12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96곳 총 5만501가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6만1964가구에 비해 1만1463가구 감소한 물량이다. 수도권에는 28곳 1만4122가구, 지방에는 68곳 3만637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14곳 7703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 입주물량은 10곳 4003가구, 인천은 4곳 2416가구로 집계됐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는 '래미안밤섬리베뉴1·2단지'가 오는 10월 말 입주할 예정이다. 상수1·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1단지는 전용면적 59~125㎡ 총 429가구, 2단지는 전용면적 59~147㎡ 총 530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서는 '운정신도시센트레빌3차'이 전용면적 59~126㎡ 총 1480가구가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서는 '평택소사벌 B-3블록'이 역시 11월 입주 예정이며, 전용면적 74~84㎡ 총 851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방은 부산 입주물량이 14곳 7902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세종 11곳 6605가구, 경남 7곳 3839가구 순이다.

/김두탁기자

한화건설 '목표 달성 및 무재해 결의 산행' 한화건설은 지난 주말 화악기능골을 맞아 이근포 사장(앞 왼쪽 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 120여 명이 경영목표 달성과 무재해 결의 청계산 산행을 실시했다. /한화건설 제공

'새만금사업' 규제 푼다

유인책 강화로 투자 활성화

새만금 사업지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현재의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지역의 토지용도가 현행 기준보다 단순해진다.

현재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지체계를 투자유치 관점에 맞춰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대 체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과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김두탁기자

건설공제, 역대 임원 13명 중 12명이 국토부 출신

관피아 갈수록 심각

자산 6조원을 주무르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연봉 3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국토교통부 퇴직직원을 내려보내는 관피아 욕심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원미갑)의원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후임 이사장 추천이 무산된 것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관피아 여론을 넘겨 내년 3월에 낙하산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낙하산 욕심을 버렸다면 건설공제조합 후임 이사장 선출이 내년 3월로 미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내달 초 임기만료되는 현 이사장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국토부 담당국장 참석)했으나, 후임 이사장은 내년 3월에 추천하기로 하고, 현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건설공제조합의 역대 이사장과 전무이사 13명 중 12명이 국토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사장은 7명 중 6명, 전무이사는 6명 모두가 국토부 출신이었다.

국토부가 관피아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 파장은 고스란히 건설공제조합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토부 출신인사를 전무이사로 내정했다고 세월호 사건으로 6개월간 인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 마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경영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

튀는 외관·예쁜 매장… "맛도 좋아요"

눈길 사로잡는 이색 디저트숍 인기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가족 나들이도 한창이다.

그런데 연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색 숍들이 있다. 맛은 물론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먼저 끄는 가게가 생기다.

우유갑을 꼭 닮은 건물에선 부드러운 밀크 아이스크림을, 커다란 선물상자처럼 보이는 가게에선 달콤한 초콜릿을, 그리고 매력적인 찻잔 모양의 카페에선 오스트리아의 풍미 깊은 커피를 맛볼 수 있다.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 있는 '밀크엔 카페'는 한 눈에 봐도 우유로 만든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이라는걸 할 수 있다.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 유기농 우유로 모든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우유팩 모양의 건물을 디자인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초코와 견과류, 망고 등의 토핑이 얹어진 다양한 밀크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들고 먹을 수 있는 밀크엔의 모나센드가 대표 메뉴다. 찹쌀로 만든 얇게 구운 과자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만든 수제 모나센드는 출출할 때 먹으면 더욱 든든하다.

서울 경복궁역 근처의 '사또 쇼콜라'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고 있는 빨간 상자 모양의 건물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하다.

눈에 띄는 외관만큼 내부도 아기자기 꾸며져 있다. 수제 초콜릿을 판매하는 이 곳은 세계 10대 초콜릿박물관으로 선정된 제주도의 초콜릿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한 초콜릿 판매뿐 아니라 진하고 깊은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핫초콜릿을 맛볼 수 있다.

경기도 일산 롯데백화점 지하 2층의 '율리어스 마이늘(Julius Meinl, 사진)'은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이는 새빨간 이국적인 커피잔 안에서는 바리스타들이 정성스레 커피를 내린다.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레드컵 카페 부스는 세계적인 이탈리아 디자이너 마테오 퉁(Matteo Thun)의 작품이다.

이 브랜드는 이미 유럽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150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9개 전문점이라고 한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있지만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비첸자 두 곳 공장에만 로스팅 해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은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정윤일기자 ****@metroseoul.co.kr

치즈의 유혹에 빠진 외식업계

고소하고 쫄깃한 모짜렐라 치즈와 환상궁합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외식업계에서 치즈를 활용한 따뜻한 제품들이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모짜렐라 치즈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하고 순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메뉴를 내놓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기존의 피자·스파게티·떡볶이 이 외에 김밥·치킨·등갈비 등 모짜렐라 치즈를 믹스매치 하는 이색 메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분식의 대명사인 김밥에 치즈를 얹은 치즈김밥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란 체다 슬라이스 치즈가 들어간 메뉴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캐주얼 한식 브랜드 스쿨푸드는 발상을 전환해 선보인 '스팸마리'는 기존의 스팸마리에 모짜렐라치즈를 넣고 계란 옷을 입혀 더욱 고소하고 부드럽다. 뜨끈한 계란 옷 덕분에 모짜렐라 치즈가 알맞게 녹아 쫄깃하게 늘어지면서 특유의 식감을 발휘한다.

등갈비와 모짜렐라 치즈의 만남도 이색적이다. 홍대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제임스 치즈 등갈비(사진)'는 등갈비에 3단계의 매운맛 소스, 찍어먹는 모짜렐라 치즈를 결합해 인기를 끌고 있다. 엄선한 돼지 등갈비를 특제 소스로 숙성시킨 뒤 여기에 다양한 토핑이 어우러진 치즈를 콸콸 커다란 팬 위에 내놓고 있다.

모짜렐라 치즈와 치킨의 만남도 의외로 좋은 궁합을 이룬다. 도미노피자가 지난 달 새로 운 사이드디쉬로 내놓은 스페셜티(Specialty)치킨은 특제 바베큐 소스로 양념한 치킨 텐더 위에 모짜렐라와 체다치즈·베이컨칩을 올리고 파인애플 슬라이스·할라피뇨·스윗미니칠리를 곁들인 메뉴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정윤일기자

롯데제과, 사랑나눔도 1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세상' 사회활동

롯데제과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빼빼로와 자일리톨껌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상생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고객의 사랑으로 성장했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롯데제과는 지난해부터 '맛있는 나눔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올해 11월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경북 예천에 지역아동센터(스위트홈) 2호점을 오픈한다. 지난해 전북 완주에 1호점을 설립하면서 매년 1호점씩 오픈 하기로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빼빼로 판매 수익금으로 세워진 지역아동센터 '스위트홈'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희망의 꿈을 피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롯데제과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 장애인의날 등에 빼빼로, 가나 등 제품을 아름다운가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 5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 7억원 등 총 12억원 상당의 제품이 전달됐다.

지난해 롯데제과는 사회복지공동기금회인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빼빼로 기증하고, '아름다운가게(사진)', '월드비전', '지구촌사랑나눔', '한국구세군' 등 사회공익단체를 통해 해당 제품을 기부했다.

연말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함께 유니세프 크리스마스 엽서 판매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빼빼로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말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에게 '가이대력 본부'를 통해 제품을 전달했다.

롯데제과의 사회 공헌 활동은 자사의 자일리톨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닥터 자일리톨버스가 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닥터자일리톨버스'를 운영중이다. 이 이동검진버스를 통해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 활동에 참여한 치과 의사 숫자만 누적으로 40여 명에 달하고, 진료를 받은 내원자만도 1000여 명에 달한다.

한편 롯데제과는 지난 2010년 3월 국내 최초의 제과식 과자박물관인 '스위트팩토리'를 개관했다.

/정윤일기자

강강술래 "소중한 문화유산 감상하세요~"

국내 최초·최대 규모 청화백자展 티켓 증정
보양식 곰탕, 영양간식 육포 등 할인전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전시회의 계절 가을을 맞아 희귀하고 소중한 우리 옛 문화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들에게 선물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청화靑畵' 그 푸른 빛에 물들다' 전시회 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공예와 회화가 결합된 일상 미의식의 정수인 조선 청화백자를 살펴보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전시로 도쿄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는 청화백자 명품과 중국 명나라 최고 걸작 명라 선덕 연간의 청화백자 등 총 5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수능 수험생 및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선물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64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100% 국내산 돼지 등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등등심돈가스(3세트 2.16kg·3만15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세트 2.16kg·3만78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 6봉·2만5800원) 등 영양간식도 30% 할인 판매한다.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 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이달 말까지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윤일기자

가을 패션 '와인색'에 취하다

'버건디' 컬러 가방·트렌치코트 등 아이템 인기몰이

패션업계가 고혹적인 느낌의 버건디(burgundy) 컬러 제품으로 가을 여심을 공략 중이다. 붉은 포도주 같은 진한 자주색을 뜻하는 버건디는 캐주얼한 분위기부터 포멀한 느낌까지 두루 연출할 수 있다. 코듀로이 니트 등 가을에 주로 입는 소재들과도 잘 어울려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 액세서리 브랜드 두아니는 이번 시즌 트렌드 색상인 버건디를 숄더백, 백팩, 토트백 클러치 지갑 등에 적용했다.

두아니의 버건디 컬러 숄더백은 소가죽에 줄무늬 엠각 세공을 해 고급스러운 질감과 독특한 잠금 장식 포인트로 우아하면서도 도시적인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어깨끈 길이 조절이 자유로워 숄더백과 크로스백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카키·브라운·그레이 등 가을옷에 매치하기 좋은 버건디 백팩은 캐주얼 룩부터 세미 정장까지 다양한 느낌으로 멜 수 있어 특히 여성 직장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열쇠와 자물쇠 장식으로 더욱 멋스러우며 등 부분에 지퍼 여밈이 있어 수납이 편리하다.

여성복 브랜드 엔섬에서는 블랙·베이지·네이비 등 기본색 트렌치코트 외에 와인색 트렌치코트를 출시했다.

엔섬의 와인 컬러 트렌치코트는 세련된 실루엣과 라벨(코트나 재킷의 앞몸판이 깃과 하나로 이어져 접혀진 부분)의 독특한 배색이 돋보이는 아이템으로, 고혹적인 스타일 연출에 제격이다.

두아니 관계자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버건디 색상의 핸드백은 한 번 구입해두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다"면서 "피부 톤이나 머리카락 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색인 만큼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해보고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jwp@metroseoul.co.kr

슈퍼푸드 '먹고, 바르고'

피부건강 좋은 '블루베리·견과류' 등 제격

최근 건조한 날씨에 밤 낮으로 온도 차가 커지고 따가운 자외선 등으로 피부손상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등 가을철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함유된 견과류·블루베리·연어 등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활용한 식음료와 뷰티 제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먼저 돌(Dole)코리아의 '프리미엄 후룻바를 블루베리'는 슈퍼푸드인 블루베리가 100% 주스에 담겨 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항노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켈로그의 '크런치 너트 아몬드 푸레이크'에는 비타민E가 풍부한 아몬드가 12% 함유된 것은 물론 일일 권장 영양소 기준치의 25%의 비타민과 철분·아연이 함유돼 있어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데 효과적이다.

동원F&B에서 출시한 '동원 연어'는 사종 연어 중 유일하게 고급 어종이며 색이 붉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 코호(Coho) 연어를 사용했다. 연어 특유의 '아스타잔틴'이라는 물질은 코엔자임Q10의 150배에 해당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돌(Dole)코리아의 '후룻&넛츠'는 수입한지 180일 미만의 신선한 견과류와 건과일을 엄선해 제조됐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는 피부에 부족한 유분을 보충하고 비타민E가 풍부한 아몬드와 미네랄이 담겨 있는 캐슈넛이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록시땅 '아몬드 밀크 베일'은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아몬드 오일과 밀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있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준다.

시크릿키의 '슈퍼 클렌징 젤리'는 연어·블루베리·아몬드·엘매·브로콜리 등 슈퍼푸드 중 6가지 슈퍼푸드의 추출물로 만든 수분 보충 크림이다.

피부 관리에 신경쓰는 그루밍족들을 위한 제품도 인기다. 랩 시리즈의 '에이지 레스큐+ 워터-차지드 젤 크림'은 즉각적으로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주며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는 남성용 스킨 케어 제품이다.

천연화장품브랜드 '닐즈'의 남성들을 위한 로버스트 스킨케어 라인에는 슈퍼푸드인 브로콜리·녹차·토마토·크루·블루베리 등의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에 건강을 준다.

/정경원기자

'베리'의 재발견… 관련 화장품 쏟아져

항산화 기능에 주목… 수면팩·보디 크림 등 인기

최근 세계적인 톱 모델 미란다 커가 자신의 몸매 비결로 아사이베리를 지목하면서 다양한 베리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리류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피부 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뷰티업계에서도 발빠르게 베리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쥬어릭스의 '진생베리 SO 오버나이트 마스크'는 인삼의 일생 중 가장 짧은 시기인 4년생 때 단 일주일만 열리는 붉은 열매 '진생베리'를 주성분으로 한 수면팩이다. 밤 시간대 수분과 영양을 집중 공급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욱 탱탱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또한 비타민 B3와 아데노신이 함유돼 있어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가꿔주고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뉴트로지나의 '너리싱 노르딕 베리 보디 모이스처라이저'는 북유럽 최저단 영하 40도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의 열매 '노르딕 베리'의 비타민 보습효과와 노르웨이젼 포뮬러가 만나 건조한 보디 피부에 영양을 집중 공급한다. 비타민 C·E가 풍부하게 함유돼 탄력까지 관리한다.

스와니코코의 '아사이베리 진액 동안앰플'은 최고의 동안열매라 불리는 아사이베리의 진액을 나노화된 기술로 담아 피부 흡수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데노신, 브르페린 등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이 노화된 피부에 영양을 전달, 푸석해진 피부를 촌촌하게 가꿔준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체지원기자

이너웨어도 '요우커'로 특수

국경절 기간 주요 관광 상권 매장 중국인 붐벼

패션 뷰티에 이어 속옷도 중국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은 국경절 연휴기간(10월 1일~10월 7일) 주요 쇼핑 관광지인 명동·홍대·제주 지역 매장의 중국 관광객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성 이너웨어 브랜드 '예스'의 경우 이 기간 명동·홍대·제주점의 하루 평균 중국인 고객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 역시 전주 대비 약 60% 뛰었다. 같은 기간 '리바이스 바디웨어'는 매출이 평균 20% 증가했으며, 섹시쿠키 홍대점은 약 25% 신장했다.

품목별로는 여성 란제리 제품의 판매 비중이 58%를 차지했으며 남성 드로즈(22%)·파자마(15%)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수정기자

지워지는 형광펜 출시

글로벌 소비재브랜드 BIC 프로덕트 코리아(대표 홍승욱)가 신개념 형광펜 '브라이트라이너하이라이터 테이프'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지우개로 수정이 가능한 형광펜으로 테이프 형식으로 만들어져 일반 형광펜 보다 번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테이프를 칠한 곳은 지우개로 깔끔히 지울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뚜껑이 필요없는 트위스트 식 뚜껑으로 돼 있어 뚜껑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종류는 노랑색과 분홍색 총 2가지다.

빅프로덕트 코리아 관계자는 "실용성 강한 문구제품으로 유명한 BIC은 수시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유행에 민감한 수요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직장인 안주맛집

맛있는 원샷

매주 수요일 밤 11시

'한국의 집' 새단장

시설·서비스 업그레이드

우리 전통문화가 뛰어난 예술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집'이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마쳤다.

한국의 집은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1980년 건립된 곳으로, 전통혼례와 공연을 체험하고 전통음식을 맛보는 등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이다.

지난 33년간 개관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용객들에게 좀 더 편안한 시설 이용과 양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리뉴얼을 실시했다.

먼저 한국의 집은 입구와 주차공간 공사를 진행했다. 입구 동선에 기와와 단청 이미지를 가미해 전통미를 강조했으며 조명시설을 개선해 자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했다. 또 본관의 로비 내실 별채의 조명은 LED조명으로 교체했으며 조리실 환경 개선 공사도 이뤄졌다.

서비스 콘텐츠에도 변화를 시도했다. 공연과 전통음식 등 기존의 콘텐츠와 고객 편의와 수요를 반영해 다방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김기관 한국의 집 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집은 더욱 친화적이고 고품적인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설 것"이라며 "더 큰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266-9101~3 /황재용기자 hsoul38@

유통업계 "300만 캠핑족 잡아라"

캠핑 용품 매출이 오르는 가을철이 되면서 유통 업계가 캠핑족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60만명이었던 캠핑 인구는 올해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서도 관련 매출이 많게는 세자릿수까지 급증했다.

실제 옥션에서는 올해(1~9월) 들어 캠핑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특히 같은 기간 루프탑텐트(사진)나 캠핑카 관련 제품이 약 40배 가까이(3990%) 늘었다.

G마켓에서는 랜턴걸이 스탠드(347%), 베드텐트(475%) 등 캠핑 소품 매출이 급증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티몬에서는 매달 20% 씩 캠핑관련 상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쇼핑 업계는 기획전으로 할인 공세에 나섰다.

G마켓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스포츠&레저 세일 365' 기획전을 열고 캠핑 용품을 모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야외 활동 때 편리한 스포츠 의류와 자전거·라켓 등 레저 용품 등을 최대 55% 할인한다.

옥션의 캠핑용품 전문관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한정수량으로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착한 캠핑'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특가 제품 외에 관련 제품을 최대 44% 할인 판매하고 있다.

위메프는 바비큐 소시지 등 캠핑 푸드를 할인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며, 쿠팡은 다음달 11일까지 '캠핑 기획전'을 연다.

홈쇼핑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캠핑 상품을 판매한다.

GS샵은 모바일과 인터넷쇼핑몰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아웃도어 라이프 캠핑 페어' 기획전을 열고 입점된 롯데백화점의 블랙야크 네파 등 인기 캠핑상품을 판매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세계가 인정한 '최고 비즈니스 호텔'

쉐라톤 인천 호텔, '월드 트래블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쉐라톤 인천 호텔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4 월드 트래블 어워드(World Travel Awards)'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 부문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어워드는 전 세계 여행업계 전반에 걸쳐 매년 인지도와 우수 고객 서비스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전 세계 여행사와 관광 전문가들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정해진다.

이번 수상으로 호텔은 개관 이후 4년 연속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리차드 수터 쉐라톤 인천 호텔 총지배인은 "쉐라톤 인천 호텔은 쉐라톤만의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특급 호텔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아이디어 조리도구 주부 '유혹'

생활 속 불편 개선 아이디어 제품 인기

조리도구가 진화하고 있다. 생선을 온전하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생선 뒤집개부터 물 빠짐 홈이 있는 도마,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쌀 세척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주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식재료 중 조리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생선이다. 재료 손질부터 손이 많이 가고 구이를 할 때면 뒤집을 때 살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실리트의 엑스트라 생선 뒤집개(사진)는 생선 크기에 맞춰 너비가 넓은 뒤집개로 생선을 한 번에 온전하게 뒤집을 수 있다. 또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용기의 긁힘을 방지하고 음식물이 조리도구에 달라 붙지 않아 편리하다. 최고 200℃의 강한 내열성을 지녀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다.

음식을 하다 보면 재료를 각종 주방 도구에 옮기는 과정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볼에서 재료를 헹구고 채망으로 옮겨 물기를 뺀 후 도마 위에서 손질한 재료를 냄비 또는 프라이팬 등에 붓는 과정은 길고 번거롭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도마 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도마가 등장했다.

조셉조셉 린스앤 칩 도마는 한 쪽에 물 채짐 홈이 파여 있어 재료를 씻고 물기를 뺀 후 곧바로 프라이팬에 넣는 논스톱 조리가 가능하다. 고밀축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돼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며 냄새가 잘 배지 않는다.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쌀을 씻을 수 있는 쌀 세척기도 출시됐다. 락앤락 쌀 세척기는 세척 볼이 20° 기울어 있고 경사면에 195개의 홈이 있어 체에 받칠 필요가 없다. 또 실리콘 세척기와 세척 볼의 마찰 원리와 회전력으로 손 대지 않고도 쌀을 씻을 수 있다. /김수정기자

이대목동병원, 태아 초음파 사진전

17일까지 병원 로비서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과장 정혜원)가 병원 2층 로비에서 '새생명의 기쁨'을 주제로 태아 초음파 사진전을 개최한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3D와 4D로 촬영된 태아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출생 이후의 모습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진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해시태그 달고, 유니클로 후리스 받고

국내 출시 10주년 행사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보온성을 높인 '후리스 컬렉션'을 선보이고 국내 출시 10주년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후리스 컬렉션은 봄진재킷 조끼 코트 블루종·풀오버·치마 등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되며 땀을 열로 바꾸는 미네랄 함유 보온 원사' 등을 사용해 옷 안의 온도를 약 1.5도 상승시키는 보온성을 갖췄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한 유니클로는 국내 후리스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사은 행사를 벌인다.

유니클로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또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후리스를 입은 사진을 '#후리스스타일' 또는 '#fleecestyle'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매주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30명을 뽑아 총 90명에게 후리스를 선물한다. /박지원기자

"결혼의 환상? 아픔이 될 수도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스크린 찾은

신민아

24년 만의 리메이크 최진실 역할 부담
여성도 공감할 캐릭터 표현위해 노력
5년 만의 영화 "더 활발히 활동할 것"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신민아(30)는 얼굴이 부은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다. 붓기를 빼기 위해 손가락을 눈에 댄 채 뒤뚱거리는 모습은 신민아의 기존 이미지를 생각하면 새롭고 낯설다. 앞서 개봉했던 '경주'에 이어 '나의 사랑 나의 신부'까지 신민아는 올해 스크린에서 보다 일상적인 연기로 관객들과 만났다. 신민아의 재발견이다.

1990년 개봉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서울에서만 20만여 명의 관객을 모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 대표작이다. 24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신민아는 과거 최진실이 연기했던 미영 역을 맡았다. 리메이크 영화는 원작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신민아는 최진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출연을 결심한 것은 영화에 담긴 현실적인 공감대 때문이었다. "미영을 통해 여성들도 같은 공감대를 느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결혼은 안 했음에도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최진실 선배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원작과 다른 우리 영화만의 미영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보도자료는 미영을 '대한민국의 보통 아내'라고 소개한다. 신민아의 기존 이미지를 떠올리면 조금 낯선 조합이다. 정작 신민아는 "광고나 화보에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느낌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 것 같다"며 일상적인 캐릭터를 연기함에 부담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키친'과 '경주'에서 결혼한 여성을 연기한 적 있지만 이번 영화는 결혼 생활이 중심이 되는 만큼 실제 유부녀처럼 보이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썼다. "헷딘 이미지로 보일까봐 걱정됐어요. 다행히 자연스럽게 봐주시는 것 같아 좋아요(웃음)."

로맨틱 코미디인 만큼 상대 배우와의 호흡도 중요했다. 미영의 남편 영민 역의 조정석과는 촬영 초반부터 금방 친해졌다. 영화 첫 에피소드인 '잔들이'에 등장하는 일명 '팬티' 시퀀스는 두 배우의 호흡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다. "빨리 친해져서 그런지 어색한 건 없었어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둘 다 하고 있었고요. 원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로 어떻게든 재밌게 표현하자는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과 함께 달콤한 신혼생활을 맞이한 미영과 영민은 서로의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오해와 갈등을 겪으며 소원함을 느낀다. '첫사랑' 에피소드에서의 미영은 신민아의 일상적인 연기가 빛을 발하는 장면 중 하나다. "여자의 첫사랑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첫 모습이다"라는 영화 속 대사는 신민아 스스로도 많이 공감한 대사다.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면 여자로서는 점점 잃어간다고 하잖아요. 간접적인 경험이었지만 미영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도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어요."

신민아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결혼보다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스스로도 영화를 찍으면서 사랑과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결혼도 사랑도 너무 큰 환상을 갖거나 기대를 가지면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환상이 있는 편인데 그런 걸 조금은 버린다면 사랑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신민아가 관객들에게 바라는 것도 영화를 통해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연인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다.

신민아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상업영화와 저예산영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그러나 흥행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 스크린을 떠나 브라운관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신민아는 지난 6월 '경주'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왔다. 롱 테이크 촬영을 경험하며 "진짜 영화 속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는 작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영화에 대한 마음가짐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배우로서의 마음은 한결같다.

"30대라는 나이, 그리고 그 동안 배우로서 쌓아온 경험 때문에 다르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우에 대한 제 생각은 늘 다르지 않았어요. 주어진 기회가 만족스럽다면 어떤 작품이든 하는 거죠. 지금은 좀 더 활발히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진 부외상드레이(협) 디자인/황승미

日 인기 만화 '라이어 게임' 드라마로

tvN 새 월화드라마, '더 지니어스' 뛰어넘는 재미 예고

일본 카이타니 시노부의 인기 만화 '라이어 게임'이 드라마로 탄생했다.

오는 20일 오후 11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N 새 월화드라마 '라이어 게임'은 각자 다른 객점을 가진 주인공들이 100억원의 상금이 걸린 TV 쇼 '라이어 게임'에 출연하면서 펼쳐지는 일을 그린 심리 추적극이다. 원작 만화는 이미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를 모았다.

거액의 우승 상금을 두고 게임 참가자들이 서로를 속이거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꼼수 변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과정은 전체적인 이야기와 별개로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안겼다. 앞서 tvN은 '더 지니어스' 시리즈를 통해 드라마에서 간접적으로 그려진 게임을 실제 쇼 프로그램으로 탄생시켜 화제를 모았다.

한국판 '라이어 게임'의 집필을 맡은 류재용 작가는 13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을 오래 준비했는데 '더 지니어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vN 새 월화드라마 '라이어 게임'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상윤, 김소은, 조재윤, 신성록(왼쪽부터)

또 "'더 지니어스'의 성공 덕분에 그런 유형의 쇼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져서 드라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판 '라이어 게임'에 대해 류 작가는 "일드(일본드라마)를 리메이크 하는 것이 아닌 원작 만화를 드라마화 한 것"이라며 "일드엔 원작 만화에 없는 나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역시 나름의 해석을 가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드에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는 만화 판권을 산 것이므로 일드와는 분명 다른 색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빚쟁이 여대생 남다정 역의 김소은은 "'더 지니어스'를 보면서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라이어 게임'이라는 만화가 있고 드라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던 와중 캐스팅 제의가 들어와 바로 응했다"고 밝혔다.

최연소 심리학 교수 출신의 천재 사기꾼 하우진 역의 이상윤은 "원작 만화의 팬"이라며 "원작 캐릭터와 내 이미지가 달라 걱정했는데 감독님께서 일본드라마와는 다른 느낌일 것이라 얘기해줘서 부담감을 좀 덜었다"고 말했다.

극중 '라이어 게임'의 기획자 강도영 역을 맡은 신성록은 "원작을 보진 못했지만 류 작가님의 시놉시스가 워낙 완벽해 출연을 결심했다"며 "좋은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정지원기자 [email illegible]@metroseoul.co.kr

2PM '제2의 고향' 태국서 대환영

2PM 월드투어 '고 크레이지' 태국 공연 /JYP엔터테인먼트

월드투어 '고 크레이지' 열기 이어가

그룹 2PM이 '제2의 고향' 태국에서 단독 공연 '2PM 월드 투어 고 크레이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열린 이번 공연엔 현지 팬 1만여 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또 공연에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기자회견엔 80여 개 현지 매체 2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센트럴 월드 광장에서 개최된 팬미팅 '하이터치회' 인 이벤트에 당첨된 팬 450여 명은 물론 2PM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람들로 붐볐다.

태국은 멤버 닉쿤의 고향으로 2PM은 데뷔 초부터 태국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1년 6개월 만에 현지에서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도 변함없는 열기를 뽐냈다.

2PM은 이날 공연에서 '하트비트' '어게인&어게인'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등 남성미 넘치는 무대와 '10점 만점의 10점' '핸즈 업' '미친거 아니야?' 등 신나는 댄스곡, '비가 와' '마임 쏘리' 등 감성적인 발라드 무대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 지난달 발매된 정규 4집 수록곡인 택연·찬성의 유닛 무대 '사랑한단 말' 들어와줘' 준케이·우영의 유닛 무대 '슈퍼맨' 닉쿤·준호의 유닛 무대 '러브 이스 트루' 등의 무대도 이어졌다.

공연 중간 팬들과의 대화 시간엔 태국인 멤버 닉쿤이 현지 히트곡 '키스'를 태국 팬들과 함께 부르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과 방콕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2PM은 다음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월드투어를 이어간다.

/김지민 기자

'하루 아빠' 타블로 래퍼로 돌아온다

21일 에픽하이 정규 8집 '신발장' 발표

'하루 아빠' 타블로가 본업인 가수로 돌아온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타블로가 소속된 3인조 힙합그룹 에픽하이는 오는 21일 정규 8집 '신발장'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며 이튿날 오프라인 음반도 발매할 예정이다.

앞서 에픽하이는 한 편의 시를 떠오르게 하는 가사와 시대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힙합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신발장'은 지난 2012년 발표한 정규 7집 '99' 이후 2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앨범에서도 에픽하이만의 음악 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픽하이는 지난해 데뷔 10주년 정규 앨범 대신 신곡 '420'과 기념 영상만 공개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던 만큼 이번

에픽하이 정규8집 '신발장' /YG엔터테인먼트

앨범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김지민 기자

나윤권 신곡 '이프 온리' 공개

내년 초 예정 정규 앨범 앞서 싱글 발표

감성 보컬리스트 나윤권이 가을 컴백 대열에 합류했다.

나윤권은 13일 정오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싱글 '이프 온리'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나윤권이 지난달 소집해제 이후 2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이프 온리'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로 스타 작곡가 김형석과 양재선이 각각 작곡, 작사를 맡았다. 나윤권은 제음역대의 피아노 연주와 풍부한 현악기 소리를 바탕으로 헤어진 연인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노래한다.

이번 신곡은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나윤권이 내년 초로 예정된 정규 앨범 발매에 앞서 오래 기다려 준 팬들을 위해 먼저 선보이는 노래다.

한편 나윤권은 다음달 8~9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단독 콘서트 '재회'를 개최한다.

/김지민 기자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극한심리추적극

끝없는 배신과 반전,
그러나 필승법은 있다!

10.20 (월) 밤 11시 첫 방송

이상윤 ♠ 신성록

tvN

태양 '혼자' 떠오르다

세 번째 솔로 콘서트 성료…아티스트 내공 재확인

'여자들은 내 품에 내 노래에 울어~' 그룹 빅뱅의 태양이 자신의 노래 가사처럼 1만2000여 명의 관객을 2시간 동안 들었다 놨다 하며 솔로 아티스트의 내공을 보여줬다.

12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태양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2014 태양 콘서트 라이즈'는 경쾌한 노래 '바디'로 시작됐다. 태양은 첫 무대부터 상의를 벗은 채 젖은 은발을 흩날리며 등장했다. 마치 공연 하나를 이미 마치고 온 듯 흥분돼 있는 그의 목소리에 공연장엔 앉아 있는 관객이 없었다.

이어 슈퍼스타 옷을 착용한 후 팬에게 인사를 할 때도 음악은 끊이지 않았다. "내 이름이 뭐라고?"를 리듬과 함께 말하며 호응을 이끌었다.

신나는 분위기는 '유어 마이'로 반전됐다. 태양은 피아노 연주와 함께 열창했고 '아이 니드 어 걸'도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해 공연을 했다. 이때 그는 "세계 어디를 가도 미모는 한국 여자가 최고"라며 관객 중 여신급에 가까운 여성 한 명을 무대에 올려 꽃을 끌고 노래를 마무리하는 이벤트도 했다.

태양은 올해 발표한 정규 2집 타이틀곡 '눈코입'부터 빅뱅 멤버 중 가장 먼저 낸 솔로곡 '나만 바라봐'(2008), 그의 음색이 돋보이는 '웨딩드레스'(2009)를 연달아 부르며 솔로 아티스트 태양을 스스로 소개했다.

그는 "빅뱅 다섯 명이 아닌 혼자서 하는 콘서트"라며 "태양이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엔 태양의 14년 지기 친구이자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태양의 정규 2집 수록곡 '스테이 위드 미'와 지드래곤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삐딱하게'를 함께 불렀다. 두 사람은 의상으로 흑과 백을 연출해 오랜 우정이 돋보이는 무대를 꾸몄다.

태양식 유머도 빠지지 않았다. 관객 세 명의 질문을 받은 태양은 작은 키, 마지막 키스, 팬티 색깔을 묻는 난감한 물음에도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태양은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와 '배드보이'를 앙코르 곡으로 선택해 혼자 소화했고 '바디'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리아 '신중현 프로젝트 2' 발표

'어디서 어디까지' 재해석 절절함 표현

가수 리아가 13일 두 번째 싱글 '신중현 프로젝트 에피소드2 시대정신(ZEITGEIST)'을 발표했다.

타이틀 곡 '어디서 어디까지'는 1972년 발매된 김정미의 원곡을 강렬한 밴드 사운드와 독특한 리아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노래다. 특히 하모니카가 주축이 된 컨트리 풍을 바탕으로 미묘한 사이키델릭 요소가 섞여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에 대해 리아는 "현대적 크로스오버에 기반한 네오사이키"라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 곡 '어디서 어디까지'와 '그 누가 있었나요' '할래엄' 등 총 3곡이 수록됐다. 첫 번째 싱글 '신중현 프로젝트 에피소드1 망초'에 이어 이번 음반 역시 신대철이 총지휘를 맡았다. 리아는 신대철과 함께 손을 잡고 자신만의 색깔로 재창조된 신중현을 표현했다.

가수 리아 두 번째 싱글 '신중현 프로젝트 에피소드2-시대정신' 앨범 커버

리아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역사서를 쓰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그가 겪었던 시대의 그림자와 인간적 고통을 통해 그가 내뱉었던 음악의 발원을 찾기 위해 신중현의 자서전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프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 얻긴 내음이 묻어난 노래들로 구성했다.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그 절절한 감정들이 잘 전해질 것이다.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신중현의 음악들이 젊은 아티스트를 통해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김지민기자

KBS 단막극과 네이버의 만남

'간서치열전', 지상파 콘텐츠 최초 웹·모바일 선공개

KBS 단막극과 네이버가 만났다.

13일 청담동 임지아트홀에서 열린 KBS2 드라마스페셜 2014 '간서치열전' 제작발표회에서 함영훈 KBS CP는 "지상파 드라마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위기가 시작된 것 같다"며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스페셜 자체가 진화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힘들 것 같았다. '간서치열전'은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하는 출발점이 되는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간서치열전'은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소재로 미스터리 추적극 형식을 가미한 복합장르물이다. 조선시대 책벌레들이 중심이 돼 '홍길동전' 탄생 비화를 그려낸다. '홍길동전'이 살해 현장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책벌레 장수한이 책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기 위해 '홍길동전'을 찾아 나선다.

장수한 역은 KBS2 '조선총잡이'에 출연했던 배우 한주완(사진 오른쪽)이 연기했다. 그는 이날 발표회에서 "이야기가 정말 재미 있었다. 단막극 대본을 받았다는 걸 의심할 정도로 규모가 압도적이었다"며 "최초의 언문소설이라는 소재와 조선 시대 책 덕후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출연 이유를 전했다.

책벌레 못지 않은 비상한 재주를 지닌 기생 계월 역은 배우 민지아가 맡았다. 민지아(왼쪽)는 "대본을 보면서 만화책을 읽는 것 같이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캐릭터라 도전하고 싶었다"고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말했다.

드라마를 연출한 박진석 감독은 "'간서치열전'은 웹드라마 형식에 가장 적합하다"며 "70분 만에 사건을 해결해야 하니까 빠른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작품의 강점을 설명했다.

'간서치열전'은 지상파 콘텐츠로선 웹과 모바일 플랫폼에 선공개 되는 첫 번째 작품이다. 13일 밤 12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네이버 TV 캐스트 '웹드라마 간서치열전'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매일 10분씩 6차례에 걸쳐 네이버 TV 캐스트로 방영되며 마지막 7회는 오는 19일 일요일 밤 12시 KBS 2TV 본방송 직후 볼 수 있다.

/전효진기자

가을 극장가 사회 드라마 열풍

'제보자' 흥행 이어 '다이빙벨' '소리굽쇠' '카트' 등 개봉

올 가을 극장가의 키워드는 사회 드라마다. 실화 바탕의 작품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들이 대거 극장가를 찾고 있다.

지난 2일 개봉한 '제보자'(큰 사진)는 지난 2005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의 복제 줄기세포 스캔들을 다뤘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실화 바탕의 감동 드라마를 만들었던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제보자'는 국익과 진실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국 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담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언론의 중요성을 다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슬로우 비디오, '마담 뺑덕'과의 흥행 대결에서 1위로 선두를 달렸으며 12일까지 누적 관객수 125만을 기록 중이다.

임순례 감독은 "언론의 자유, 우리 사회의 진실을 파헤치는 한 언론인의 집요한 부경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개봉하는 '카트'(작은 사진 왼쪽)는 대형마트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그 동안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카트'는 상업영화가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연출은 공효진·신민아 수연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로 장편 데뷔한 부지영 감독이 맡았다. 부지영 감독은 "비정규직 노동 문제라는 소재를 상업영화 안에서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큰 용기라고 생각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라 생각해 흔쾌히 제작에 참여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염정아·문정희·김영애·김강우·황정민·천우희·이승준·지우, 그리고 엑소 멤버 도경수 등이 출연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소리굽쇠'(오른쪽)도 오는 30일 개봉을 확정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중국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추상미의 오빠로 연극과 뮤지컬에서 활동해온 추상록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조안, 김민상, 이옥희 등을 비롯한 전 출연진과 제작진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또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으로 떠오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울산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60년대 현대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철의 꿈'도 10월과 11월 개봉을 준비 중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패션왕' 11월 6일 개봉

수능·빼빼로데이 앞두고 흥행 도전

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패션왕'(감독 오기환)이 다음달 6일 개봉을 확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개봉해 흥행에 도전한다.

'패션왕'은 '간지'에 눈뜬 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기로 결심한 '가얀고 빵셔틀' 우기명(주원·사진)의 인생을 건 도전을 담은 작품. '선물' '작업의 정석' 등을 연출한 오기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011년 연재를 시작한 웹툰 '패션왕'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패러디 웹툰과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영화는 웹툰 특유의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위트 있는 대사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해 새롭게 탄생됐다.

이번 영화에는 드라마와 영화로 대세로 떠오른 주원을 비롯해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 안재현, 박세영, 김성오 등이 가세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캐릭터 예고편과 메인 예고편도 공개와 동시에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병호기자

'헝거게임3' 메인 포스터 공개

제니퍼 로렌스 내한으로 기대감 고조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헝거게임: 모킹제이'가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혁명의 상징인 모킹제이가 된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절대권력 캐피톨에 맞서 정면승부를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혁명의 상징인 모킹제이로 부활한 캣니스의 모습을 담았다. '마침내, 혁명의 불꽃이 타오른다'라는 장엄한 카피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곱게 뻗은 날개, 캣니스의 상징인 활과 함께 비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캣니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은 이전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장한 캣니스의 카리스마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혁명군과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2012년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과 2013년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 작품이다. 다음달 20일 개봉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달 4일에는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과 주연 배우 제니퍼 로렌스, 조쉬 허처슨, 리암 햄스워스가 내한한다.

/장병호기자

마침내, 혁명의 불꽃이 타오른다!

천재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의 무대

라카토시, 25일 세종문화회관서 공연

헝가리 출신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라카토시가 2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라카토시는 헝가리 직시 음악의 정통을 이어받은 음악가다. 전설적인 헝가리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야노슈 비하리 가문의 7대손이다. 그는 부다페스트의 벨라 바르톡 콘서바토리에서 체계적인 음악 수업을 통해 집시음악과 클래식을 동시에 소화했다.

이는 라카토시가 집시음악의 정행과 개성을 살리면서도 클래식의 깊이와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그는 1990년대 초반 경악할 만한 속도로 작품을 연주하는 기술적 완성도로 유럽 연주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인정받아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유일하게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음반을 발표하는 등 압도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연주가로 이름을 떨쳤다.

라카토시는 현란한 테크닉에 걸맞은 천재적인 면모와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통 음악의 품격을 유지해 다양한 관중을 아우르고 있다.

그동안 스테판 그라펠리, 허비 행콕, 바딤 레핀, 래니 브레커 등 재즈의 거장들을 비롯해 프랑스 방송교향악단, 드레스덴 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럽의 수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음악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전통 집시음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와 기타를 끌어들여 2대의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더블베이스, 헝가리 민속악기 침발롬의 편성으로 6인조 라카토시 앙상블을 구성한다. 집시음악의 유쾌함과 재즈의 즉흥성이 살아있는 레퍼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를 나누는 사회를 위해 청소년은 50%, 대학생은 40% 할인된 티켓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다.

/유순호기자

배상문 PGA 투어 개막전 우승

2014-15 시즌 첫 경기 15언더파 273타… 두 번째 영예

배상문(28·캘러웨이·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새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배상문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컨트리클럽(파72·7203야드)에서 열린 2014-2015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적어내며 우승을 차지했다. 배상문의 뒤를 이어 호주의 스티븐 보디치가 13언더파 275타를 쳐내 2위에 올랐다.

지난 2012년 PGA 투어에 진출한 배상문은 지난해 5월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우승 이후 1년 5개월 여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상금 108만 달러(한화 약 11억6000만원)를 받았다. 지난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우승 이후 한번도 톱10에 들지 못하며 슬럼프에 빠진 배상문이었지만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다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배상문은 PGA투어에서 8승을 기록한 최경주(44·SK텔레콤)와 2승을 올린 양용은(42)에 이어 세 번째로 2승 이상을 올린 한국 선수로 기록됐다.

4타차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은 배상문은 5번홀(파5)에서 2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갔다.

8번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9번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해 2위로 따라붙은 헌터 메이핸(미국)과의 격차를 4타로 유지한 채 후반으로 들어섰다. 11번홀(파3)에서는 그린을 놓쳐 다시 1타를 잃었지만 12번홀(파4)에서 4.5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 메이핸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상문은 13번홀과 14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냈다. 먼저 경기를 끝낸 스티븐 보디치(호주)에게 2타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16번홀(파5)에서도 티샷을 러프로 보낸 배상문은 세 번째 샷마저 그린에 올리지 못해 경기 막판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어프로치샷을 홀 50㎝에 붙인 뒤 파로 막았다.

17번홀(파4)에서도 그린을 놓쳤지만 이 역시 파를 지킨 배상문은 1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가장자리에 올렸다. 1.2m 버디 퍼트를 놓쳐 파에 그쳤지만 우승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다.

지난해 5월 HP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주춤했던 배상문은 1년 5개월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맛봤다. 배상문은 첫 우승 뒤 지난 2월 노던트러스트 오픈에서 거둔 공동 12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이후 37번째 대회 만에 PGA 투어 정상에 다시 올랐다.

한편 이번 우승은 지난 4월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노승열(23·나이키골프) 이후 6개월 만에 PGA에서 전한 순수 한국인 우승이기도 하다.

/김학철기자 kimsf1164@metroseoul.co.kr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었다"

맨유 앰버서더 박지성이 꼽은 골 '베스트 5'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클럽 앰버서더로 임명된 박지성(사진)이 맨유에서 뛴 7년여 시절 자신이 터뜨린 최고의 골 5개를 직접 꼽아 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박지성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총 205경기를 뛰면서 27골을 터뜨렸다.

지난 2005년 12월 20일 리그컵 버밍엄시티와의 경기에서 맨유는 3-1로 승리했다. 이날 박지성은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맨유에서의 데뷔골을 넣었다. 박지성은 "기회를 잡았을 때 이 골을 넣지 못하면 맨유에서 골을 넣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데뷔골을 넣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다.

2008년 3월 1일 정규리그 풀럼과의 경기에서 박지성은 헤딩골을 선보였다. 1-0으로 앞선 전반 막판 박지성이 폴 스콜스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추가골을 올렸다. 박지성은 "폴 스콜스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나는 키가 작고 제공권도 약했으니까 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2010년 1월 31일 맨유는 정규리그 아스널과의 빅매치에서 1-3 승리했다. 박지성은 이날 2-0으로 앞선 후반 7분 쐐기골을 넣었다. 박지성은 "내 골이 경기를 끝냈다"며 "공을 잡는 순간 나니에게 패스할 수 있었지만 직접 결정지었다"고 전했다.

정규리그 순위 싸움이 치열하던 2010년 3월 21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후반 15분 박지성은 역전골을 뽑아 넣었다. 이날 맨유는 라이벌을 상대로 2-1 역전승했다. 박지성은 "사실 이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한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해냈다"고 회상했다.

2010년 11월 6일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박지성의 골로 맨유는 울버햄튼을 2-1로 제압했다. 당시 맨유에는 부상자가 많아 박지성이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경기에 나섰다. 1-1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박지성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가르며 맨유에 승리를 안겼다. 박지성은 "맨유는 종료 직전 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연출하곤 하는데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었다"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5개 구단 감독의 운명은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시즌 마감을 앞두고 감독들의 거취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4강에 들지 못한 다섯 명의 감독이 바뀔 수도 있다. 승부의 세계에서 실적이 없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지사. 누가 옷을 벗고 누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을 것인지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교체가 확실한 곳은 롯데와 한화이다. 롯데는 김시진 감독이 2년 연속 4강을 못한데다 자진 사퇴설까지 나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응용 감독은 2년 연속 꼴찌 성적을 냈다. 애초에 2년만 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성적에 관련 없이 물러나는 수순이었다.

4강 탈락이 확정된 KIA는 유동적이다. 야구인들은 선동열 감독이 3년 연속 4강에 실패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유임시킬 수도 있다. 결국 구단의 결정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두산 송일수 감독도 4강 탈락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1년차라는 점에서 내년까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년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SK 이만수 감독은 4강 싸움의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이다.

감독 교체를 준비하는 구단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외부 영입과 내부 승격이다. 즉 밖에서 감독을 모셔올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인물을 발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적 있는 인물과 새 인물을 놓고 저울질하는 셈이다.

장단점은 분명하다. 검증 받은 인물들은 성적 기대치가 높다. 반대로 내부의 새 인물들을 고사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구단을 위해 애쓴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성장과 발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인물들은 종처럼 미래를 알 수 없다. 늦어도 이번 주말이면 감독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OSEN 편집기자

프로야구 전적 (13일)

■ 문학

팀				계
두산	100	011	003	6
SK	200	000	023	7

[illegible]

■ 대전

팀				계
삼성	316	033	400	22
한화	000	001	000	1

[illegible]

■ 광주

팀				계
넥센	110	010	023	8
KIA	003	001	001	5

[illegible]